"삼바배구 왔다" 설레는 광주 팬

주말·휴일 염주체육관 월드리그배구대회 격돌

브라질, 평균 신장 198㎝…파워·속공 세계 최강

한국팀, 다양한 세트플레이 등 조직력으로 승부

세계 최대의 배구축제인 2010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광주경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일과 4일 이틀간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최강 브라질과 한국의 뜨거운 한판승부가 펼쳐진다. 특히 세계랭킹 1위의 브라질팀의 파워 넘치는 플레이는 벌써부터 지역 배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디펜딩챔피언으로 월드리그 8회 우승의 화려한 전적을 갖춘 브라질팀은 매 경기마다 강력한 파워와 속공으로 '삼바배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신장 198㎝의 장신군단인 이들은 스파이크 평균 높이도 338㎝에 달하는 '높이배구'를 펼치고 있다. 브라질팀의 또다른 무기는 장신들이 뿜어내는 강서브로, 출전 선수 대부분이 평균 2~3점의 서브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브라질은 지바(192㎝)·무릴로(190㎝)·단테(201㎝)가 왼쪽 공격을 맡고 있으며, 팀내 최장신 212㎝의 레안드로가 오른쪽에서 파워 넘치는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로드리고(205㎝)는 중앙에서 속공과 함께 수비에선 블로킹으로 상대 공격의 맥을 끊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브루노는 노련한 볼 배급으로 속공을 유도하면서 다양한 팀플레이를 이끌어 가는 세계적인 세터이다. 특히 브루노는 브라질 감독인 레전드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들에 맞서는 한국은 파워와 속도에서 '삼바배구'를 따라잡기엔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 조직력을 앞세운 다양한 세트플레이를 펼친다면 브라질과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다.

이번 광주경기에선 지난 시즌 V리그에서 삼성화재를 우승으로 이끈 주역인 최태웅·여오현·고희진을 필두로 신영수·한선수·김학민·강동진(이상 대한항공), 김요한·하현용(LIG손해보험)·문성민(할크방크) 등 13명이 태극투혼을 불사를 기세이다. 특히 문성민의 파워 넘치는 공격이 브라질의 장대수비를 어느 정도 뚫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한국은 이번 월드리그를 통해 리시브 불안으로 연속 실점하는 약점을 노출시켰다. 브라질전에서 수비력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팀을 이끄는 신치용(삼성화재) 감독은 "한 수 배운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승부를 떠나 최상의 전력을 펼치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서승원 선임기자 swseo@kwangju.co.kr

수렁에 빠진 KIA, 솟아날 구멍은?

덕아웃 소란 로페즈 벌금 500만원 중징계

'소방수' 곽정철 선발 특명…기사회생 관심

▲블론세이브(Blown Save)=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한 투수가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했을 때 기록된다. KIA 불펜진은 올 시즌 리드 상황에 등판해 14개의 블론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뼈아픈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했다.

징계와 보직변경. 창단 이후 최악의 연패 수렁에 빠져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KIA 타이거즈가 마운드 가다듬기에 나섰다.

KIA 코칭스태프는 1일 오후 회의를 갖고 잇단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로페즈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로페즈는 지난달 30일 SK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 7이닝을 2실점으로 막으며 호투했지만 8회초 불펜진의 난조로 승리를 놓치게 되자 덕아웃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소동을 벌였다.

코칭스태프 회의까지 소집된 것은 로페즈의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4승으로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던 로페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피칭으로 올 시즌 1승을 거두는데 그치고 있다.

설상가상 야수진들의 실책이 속출하고 타선과 불펜의 지원도 따르지 않는 등 마음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로페즈는 마운드에서 동료의 실수에 크게 화를 내며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강판 후 쓰레기 통을 걷어차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까지 보였던 로페즈는 결국 벌금 500만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로페즈에게 벌금과 함께 엄중 경고를 한 코칭 스태프는 차후에 팀워크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올 시즌 유독 선수들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투수진들의 돌출행동이 이어지는데 따른 조치다.

벌금카드까지 꺼내든 KIA는 1일에는 곽정철을 선발로 출격시켰다.

윤석민·전태현 두 선발진의 이탈과 함께 곽정철이 중간계투진에서 제 몫을 해주지 못했던 만큼 보직변경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연패 끊기에 나선 것이다.

곽정철(사진)은 지난 시즌 두 잠수함 손영민-유동훈과 필승 계투진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올 시즌 31경기에 나와 5.83의 부진한 방어율로 1승5패2세이브를 기록했다. 8개의 홀드를 올리기는 했지만 3차례 블론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불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트레이드를 통해 안영명-박성호 두 투수를 보충한 KIA는 부상병이 발생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차질이 생기자 선발 경험이 있는 곽정철을 마운드 전면에 재배치하고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KIA는 8개구단 최하위의 타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마운드까지 붕괴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투수 교체도 번번이 실패로 끝나면서 벌써 14개의 블론세이브를 남겼다. 뼈아픈 역전패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바닥까지 내려앉았다.

기강 재확립과 보직 변경을 감행한 KIA가 과연 마운드 힘을 앞세워 기사회생할 수 있을 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윔블던테니스대회 남자단식 8강에서 로빈 소더링을 물리치고 환호하고 있는 나달〈왼쪽〉과 총가를 꺾고 기뻐하는 머레이. /연합뉴스

나달-머레이 '윔블던 4강' 맞대결

페더러는 베르디흐에 져 탈락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과 앤디 머레이(4위·영국)가 윔블던테니스대회 남자단식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나달은 1일(한국시간) 영국 윔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9일째 남자단식 8강에서 로빈 소더링(6위·스웨덴)에게 3-1(3-6 6-3 7-6〈4〉 6-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해 프랑스오픈 16강에서 소더링에 덜미를 잡혔던 나달은 올해 프랑스오픈 결승에서 소더링을 꺾은 데 이어 이날도 완승을 거둬 확실하게 설욕했다.

2009년 윔블던에는 무릎 부상으로 불참했던 나달은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가 앞서 열린 경기에서 토마스 베르디흐(13위·체코)에게 져 탈락한 덕에 2년만의 패권 탈환 가능성이 커졌다.

윔블던 단식에서 12연승을 이어간 나달은 "다시 준결승까지 올라와 꿈만 같다. 이제 남은 4명은 누구라도 우승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말했다.

1936년 프레드 페리 이후 74년 만에 영국인 남자단식 챔피언을 노리는 머레이는 조 윌프레드 총가(10위·프랑스)를 3-1(6〈5〉-7 7-6〈5〉 6-2 6-2)로 물리쳐 4강에 합류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윔블던 4강에 오른 머레이는 "2세트까지 매우 힘든 경기였다. 나달과 대결은 언제나 재미있고 기다려진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번 대회 남자단식은 나달-머레이, 베르디흐-노박 조코비치(3위.세르비아)의 4강 대결로 압축됐다.

나달과 머레이는 지금까지 10번 만나 나달이 7승3패로 앞서 있다. 메이저대회 성적으로는 2승2패로 팽팽히 맞서 있고 올해는 호주오픈 8강에서 한 번 싸워 머레이가 이겼다. /연합뉴스

'죽음의 레이스' 투르 드 프랑스 4일 개막

총상금 48억원…암스트롱 8번째 우승 도전 관심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도로 일주 사이클대회 투르 드 프랑스가 4일(한국시간) 화려한 막을 올린다.

1903년 첫 대회를 개최한 투르 드 프랑스는 올해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20여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4일 로테르담에서 프롤로그 행사를 펼치고 나서 5일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첫 스테이지가 시작된다.

대회는 프랑스 북부 지역으로 장소를 옮긴 후 프랑스 전역을 시계 방향으로 크게 돈다. 평지 9구간과 산악 6구간 등 총 20구간 동안 3천642㎞를 주파하고 나서 26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막을 내린다.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 사이클팀 22개가 참여한다. 선수들은 이 대회를 앞두고 투르 드 스위스 등 군소 대회에 출전하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려 왔다.

참가 선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사이클 영웅' 랜스 암스트롱(39·미국)이다. 암스트롱은 고환암을 딛고 사상 처음으로 7년 연속(1999년~2005년) 투르 드 프랑스를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2005년 은퇴한 암스트롱은 2008년 복귀해 지난해 투르 드 프랑스에서 3위를 차지했다. 암스트롱은 지난 대회가 끝난 뒤 결성한 라디오샤크라는 팀을 이끌고 이번 대회를 참여한다.

암스트롱은 29일 "이번이 나의 마지막 투르 드 프랑스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암스트롱과 함께 관심을 끄는 선수는 지난해 투르 드 프랑스 우승자인 알베르토 콘다도르(27·스페인)다. 콘다도르는 작년에는 암스트롱과 같은 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대회 총상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20만 유로(한화 약 47억8천만원)다. 이 가운데 45만 유로(약 6억7천만원)가 종합 우승자에게 돌아간다. /연합뉴스